극심한 취업난… 최고 '스펙' 절실해진 대학가

교수-학생 '학점 줄다리기'

극성 정정 요구에 일부 교수 '잠수'도

#1. 광주 모 사립대 3학년 A씨는 최근 1학기 성적 정정기간 동안 학과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낭패를 봤다. 기대했던 것보다 지나치게 학점이 낮게 매겨졌다고 판단, 문의를 위해 교수와 통화를 하던중 '내 평가 방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냐'는 말을 들은 것. 앞으로도 해당 교수와 1년 이상 학교에서 마주쳐야 하는 김씨는 결국 성적 정정 요구를 포기했다.

#2. 전남의 한 전문대 교수 B씨는 매학기 성적 정정기간이 되면 걱정이 앞선다. 이 기간마다 취업 때문에 그러니 학점을 높여달라고 조르다시피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출석도 엉망인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본 것 같은데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주장할 땐 할말이 없어질 때가 많다. 앞으로 B씨는 성적 정정기간 동안 학생들의 전화는 가급적 받지 않을 계획이다.

최근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대학이 1학기 학사일정을 마무리, 성적 열람 및 정정기간에 들어간 가운데 '성적 올리기'를 놓고 곳곳에서 학생과 교수간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취업난이 가열되면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스펙을 갖추려는 학생들의 욕심(?)과 고액 등록금 탓에 좋은 성적을 받아 장학금을 타려는 학생들이 늘면서 한층 심화되고 있다.

학생들은 학점이 취업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하며 교수에게 학점 상향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교수들은 고유 권한과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 거부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 30일 광주·전남지역 주요 국·사립대에 따르면 각 대학은 지난 6월 초순부터 최근까지 '2011학년 1학기 성적 열람 및 정정'을 끝마쳤거나 진행중이다. 이 기간에 대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자신이 수강했던 강의의 학점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교수에게 학점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대학 소수 교수들이 학생들의 연락을 피해버리거나 지위를 이용해 '앞으로 두고보겠다'는 식의 위협성 발언까지 하면서 학생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광주 모 대학교 2학년 박모(여·23)씨는 "일부 교수들은 성적 정정기간마다 의도적으로 휴대전화를 꺼놓기도 한다"며 "학점 정정요구는 학생의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성적 정정기간을 악용해 교수에게 무작정 전화를 건 뒤 '학점을 올려 달라'고 주장하는 학생들 역시 문제라는 평가도 있다.

광주 한 사립대 교수는 "성적 정정기간만 되면 막무가내식으로 학점 조정을 요청하는 학생들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며 "정정을 요구하기 전에 학생 스스로 자신의 수강 태도나 시험 결과를 돌이켜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이금형 광주경찰청장 근무시간 예배 참석 논란

광주지방경찰청 이금형 청장(직무대리)이 최근 일과 중 광주의 한 교회에서 열린 취임 감사 예배에 참석,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0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 청장은 지난 21일 오전 11시부터 11시30분까지 광주시 광산구 A교회에서 열린 취임 감사 예배에 참석했다.

광주경찰 경목연합회(이하 경목연) 주관으로 열린 이 예배에는 이 청장을 포함한 광주청 총경급 간부 7명, 경목연 회원 88명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예배는 30분간 진행됐으며, 이 청장 등은 예배 후 경목연에서 마련한 오찬간담회에 참석했다.

광주경찰청 측은 신임 광주경찰청장이 부임할 때마다 하는 연례 행사로 이 청장을 포함한 광주경찰청에 대한 감사 예배인 만큼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제는 주말이나 휴일이 아닌 평일 공식 일과 시간에 참모 7명을 데리고 예배에 참석했다는 점이다. 또 불교·천주교 등 다른 종교단체에서는 그동안 이 같은 행사가 단 한 번도 없었던 점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내부에서는 이 청장이 지난 5월 25일 '절도·강도·성폭력 소탕 100일 특별단속' 선포식을 한 이후 되레 강력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범인 검거가 미진한 상황에서 예배에 참석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내가 특정 종교 신자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종교가 없다.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고 연례 행사인 줄 알고 참석했을 뿐"이라며 "근무 중에 예배에 참석한 점은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는 만큼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나원참
〈8348〉
김종두

서부서장 안병갑·완도서장 한재숙

경찰청, 총경 정기인사

경찰청은 지난 30일 전남경찰청 소속 노병현 총경을 광주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으로, 류복열 담양서장을 전남청 청문감사담당관으로 인사발령하는 등 광주·전남지역 총경급 간부 24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김근 영광서장이 광주청 경비교통과장으로 이동했고, 안병갑 광주청 정보통신담당관이 서부서장으로, 송두현 광주청 치안지도관이 보안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광주청 수사과장과 생활안전과장에는 김홍균·오윤수 경정이 각각 승진 발령됐다.

또 최정환 광주 서부서장이 전남청 경무과장으로 옮겼고, 강윤경 광주청 수사과장이 생활안전과장으로, 임광문 강진서장이 수사과장으로 이명호 부안서장이 정보과장으로, 한기민 여수서장이 보안과장으로 전보됐다.

또 김재병 전남청 정보과장이 여수서장으로, 정성기 전남청 수사과장이 순천서장으로, 조상현 전남청 생활안전과장이 장흥서장으로, 노재호 충북 보안과장이 보성서장으로, 황호선 순천서장이 영광서장으로, 이유진 광주청 생활안전과장이 강진서장으로 발령됐다.

강칠원 제주청 생활안전과장은 담양서장으로, 김학남 광주청 경비교통과장이 곡성서장으로, 한재숙 전남청 청문감사담당관이 완도서장으로 각각 임명됐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학교 에어컨 사업 수십억 허위 계상

광주시교육청의 인사·계약 등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700억여 원을 들여 각급 학교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26억2900여만 원이 허위 계상된 사실을 밝혀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특위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26억2917만 원어치의 중앙컨트롤러설치용 전선, STS냉매배관커버, 배관트레이, 룸 컨트롤러 전선 등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했으며, 이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감리단, 학교장의 유착 의혹이 일고 있다.

또한, 일부 사립학교는 최저가 입찰방식을 도입하지 않고 가격 적정성과 제안서 평가 각 50%를 반영함으로써 특정업체와 계약을 해 다른 업체보다 가격이 30% 비싼 에어컨을 구매한 사례도 있는 등 수십억 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주택화재 노인 구출 집배원에 포상금

불이 난 주택에 뛰어들어 60대 중풍 환자를 구해낸 집배원들〈광주일보 6월 30일 6면〉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광주지방우정청(청장 김성진)은 1일 오전 광주우체국 회의실에서 지난 29일 화재가 발생한 광주시 산수동 한 주택에 들어가 60대 중풍환자를 구출해낸 이 우체국 소속 집배원 김종운씨를 비롯해 동료인 권태현·최병만·한상옥씨에게 포상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지난 30일 밝혔다.

김성진 청장은 "위험한 상황에도 자신보다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발벗고 나선 4명의 집배원들은 모든 공무원의 귀감이다"라고 격려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이렇게 손 씻으세요

수족구병 등 수인성 전염병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광주시 북구 보건소 직원들이 지난 30일 보건소 교육실에서 중흥어린이집 원생들에게 올바른 손씻기를 가르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보람상조 회장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30일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최철홍 보람상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회장은 '보람 장의개발'이라는 개인 사업장 형태의 장례 서비스 대행업체를 차려 놓고 보람상조개발(주) 등 영업을 담당하는 그룹 계열사와 독점 계약을 맺은 뒤 불공정 계약을 통해 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0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횡령액이 거의 변제돼 피해자가 없다는 점을 들어 형량을 징역 3년으로 낮췄다.

/연합뉴스

광주 동구청은 지난 30일 오전 구청 상황실에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동구만들기' 행사를 갖고 지역 관련 기업 및 단체들과 할인 협약식을 가졌다. 참여 단체들은 동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출산비용의 10%~30%를 할인해 준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아파트 허가 비리 방송사 기자 체포

대검, 부산저축銀 수사중 드러나

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한 순천 왕지동 아파트 사업과 관련, 모 방송 여수 계열사 양모 기자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 30일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오전 출근하던 양씨를 현지에서 체포해 서울 중수부 사무실로 압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양씨가 왕지동 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및 사업편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양씨가 평소 지자체 고위 공무원과의 친분을 활용해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2000년대 초반부터 순천 왕지동 아파트 사업에 (주)낙원주택건설을 비롯한 3개 특수목적법인(SPC)을 동원해 총 550억원 이상을 투자했으나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연합뉴스

"불법·부실대출 알리겠다" 임원 협박

3억 뜯은 보해저축銀 전직원 체포

보해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지난 30일 이 은행 임원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황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07년 10월께 "불법·부실 대출 등 은행 비리를 외부에 알리겠다"며 겁을 줘 오문철(구속수감) 대표로부터 다른 임원을 통해 현금과 수표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여신 업무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은행의 불법행위를 알아차렸으며 인사상 혜택을 받지 못하자 오 대표를 협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전했다.

당시 은행을 퇴직한 황씨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로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양말 안 벗겨 준다" 아내에 발길질

○…자신이 신고 있던 양말을 벗겨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못난' 70대 남편이 경찰서행.

○…지난 30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양모(73)씨는 지난 29일 오후 5시께 광주시 서구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아내(69)의 머리에 발길질을 했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평소 가부장적인 양씨는 이날 외출했다가 장맛비에 옷과 양말이 젖은 상태로 귀가하던 중 현관에서 아내에게 '이리 와서 젖은 양말을 벗겨봐'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발길질을 한 것으로 판명.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시험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7급 9급 공무원 시험 [국가직 지방직] 최다 합격! 분명한 강좌!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학습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려보십시오
7급 종합반 | 9급 종합반 | 법원서기보 | 호남유일 소방직(전문) | 명품 "강력단과" | 7·9급 검찰직 | 9급 야간반 | 농업직/기술직
개강 7월 1일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한빛고시학원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
직영학원 김영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